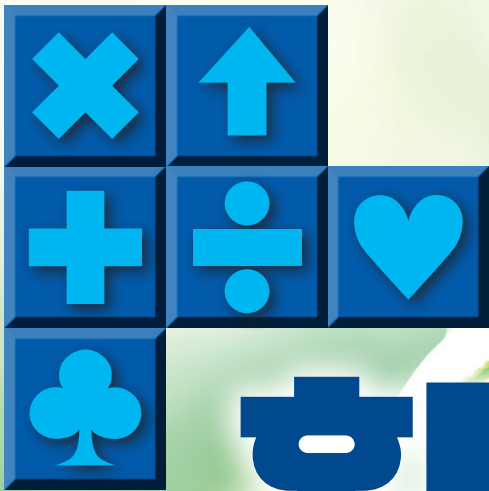


새로운 인물 새로운 중구

황운하의 힘 있는 「중구 부흥 공식」
곱하고, 높이고, 더해야 할 일과
나누고, 느끼며, 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정당당

황운하 1

오직 주민 여러분이
중구의 자존심입니다.

오직 주민 여러분이
황운하의 스승입니다.

“정치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가야 길이 된다”

진정한 정치개혁 국민의 민생안전
황운하의 평생 신념입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씩씩하고 매운 기상
‘壯烈千秋(장렬천추)’

※ 1932년 4월 29일 중국 홍구공원에서 단행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칭송하며 장개석 총통이 내린 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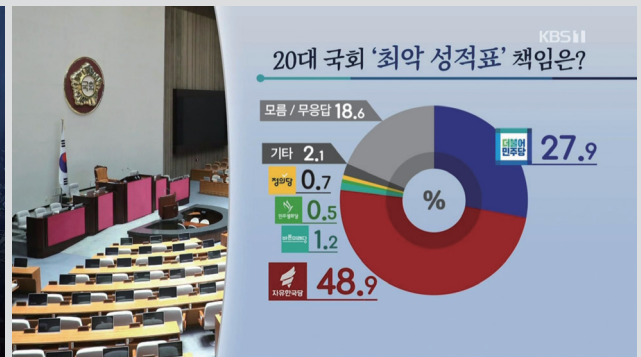
한밭운동장
윤봉길 의사 동상앞에서

역대 최악의 일 안하는 국회 이제는 바뀔시다!

인물이 다르면, 미래가 다릅니다.
국민의 지친 가슴을 감쌀 수 없다면, 바른 정치인이 아닙니다.



KBS/ 2019.6.15



KBS/ 2019.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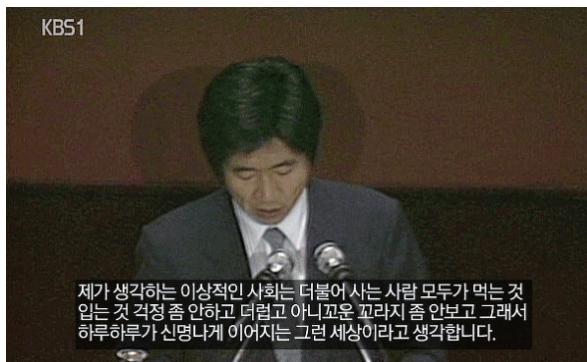
‘막장 국회’를 바꾸려면 국회의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보다 잘하길 바랍니다. 지금 보다 나아지길 바랍니다.
지금 보다 공정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보다 나은 내일을 바랍니다.
역대 최악인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이투데이/ 2019.7.29



정치혁신·검경개혁의 기수 황운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국회의원 시절
13대 국회 첫 대정부 질의(1988년 7월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2020. 2. 12



사진. 연합뉴스 / 2019. 12. 9

강자에게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지
만만한 사람을 짓밟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운하와 함께 합니다.



지금 원도심이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보문산 케이블카가 멈췄습니다.

대전시청, 충남도청도 떠났습니다.

쓸 만한 건 모두가 떠났습니다.

다시 전통시장에 사람이 복적여야 합니다.

은행동부터 대흥동, 한밭운동장까지 젊은이들이 미어터져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중구를 그리겠습니다.

원도심을 살리는 새로운 힘!
황운하가 시작하면 다릅니다.

황운하의 진실한 마음을 담다

- ▶ 은행동 스카이로드 일대, 지하상가와 전통시장 활성화(5G 인프라와 AR(증강현실) 등 첨단 콘텐츠를 도입해 전국적 명소로 조성)
- ▶ 도시철도에서 소외된 지역의 트램 지선 검토
- ▶ 대전선 철도 폐선을 따라 도시 숲길 공원 조성
- ▶ 원도심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수사 연구소' 유치
- ▶ 현 중구청사를 고밀도 복합 공공 청사로 신축



“장사 잘되는 중구, 인구가 늘어나는 중구!
한줄기 등대처럼 밝고 희망찬 거리.
늦은 밤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주세요”

태평동 버드내 건너편 먹자골목「시골집흑염소」정종원

황운하의 중구 부흥 공식

문화: 높이다



황운하의 진실한 마음을 담다

- ▶ 유천동 서남부터미널을 국내 최고 복합 문화터미널 파크로 조성
- ▶ 대흥동 관사촌 일대를 예술인 전용 문화창작 벨트로 육성
- ▶ 중촌동 옛 대전형무소 일대를 역사 문화관광 자원화
- ▶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동물원+플라워랜드) 연계
- ▶ 제2뿌리공원 '효테마파크'를 효문화 관광의 메카로 조성
- ▶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 ▶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속 추진

잘사는 중구, 효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의 푸른 신호등을 켜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이 아름답다고만 생각했지, 물도 주고 가꾸어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중구부흥의 새로운 열쇠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오명을 뒤집어썼던 유천동.
과거 유천동 집창촌을 혁파한 소신처럼,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겠습니다.

터미널 기능을 상실한 서남부터미널 일대를 문화적 도시재생의 시범사업지구로 만들겠습니다.



서남부터미널 일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중구!
대한민국 문화예술 1번지 중구 만들기.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뛰어주세요.”

대흥동 파랑새기획 유하용



황운하의 진실한 마음을 담다

- ▶ 선화동 옛 삼성생명 및 중앙로 일원을 '첨단복합창업특구'로 지정(지식 산업센터·창업지원 전문기관 유치, 청년창업 지원주택 건설)
- ▶ 중촌동 근린공원 일대를 '새활용 타운'으로 조성(중촌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주민 중심 풀뿌리 '메이커 운동'과 창의적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
- ▶ 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의 합성어.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 차원을 넘어 한 단계 진화한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작품 혹은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중촌동 근린공원 일대(청소차 차고지)

더 많이 생겨라! '더 좋은 일자리'

졸업과 동시에 취업! 요즘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닐까요?
계속되는 취업난, 갈 곳 없는 젊은이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인맥을 가진 황운하.
중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원도심에 벤처창업기업을 집적화하고
산업·연구·주거·문화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대전의 젊은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전시(대전테크노파크)에서 창업보육시설로 매입한
삼성생명 빌딩과 중앙로 첨단복합창업특구 예정지

중촌 근린공원을 업사이클링 허브로!

단순한 재활용 차원을 넘어 나눔의 개념을 실천하고,
일자리(고용)~관광~산업~복지로 이어지는
사업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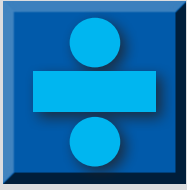


“오늘부터 육아와 보육에서 해방이다!
OO 엄마로 불리던 주부의 이름을 되찾게
여성 일자리와 '마더센터'를 부탁해요.”

유천동 전업 주부 박지은

황운하의 중구 부흥 공식

복지 : 나누다



황운하의 진실한 마음을 담다

- ▶ 중구 소방서 신설·중구 보건소 신축
- ▶ 부사·석교·문창동 등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민 복지·체육시설 확충
- ▶ 태평동 고교 신설을 위한 미래형 통합학교 도입
- ▶ 1인 가구 지원센터·홀로 사는 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 ▶ 빈집 활용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확대



통합 학교 개념도

“괜찮아, 바람 싸늘해도 사람 따스하니”

요즘 힘들어 하는 당신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외롭고 지친 손을 마주 잡고 싶습니다.

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진다는 것을
새삼 느껴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아닌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유아보육시설도, 어르신을 위한 노후대책도
중구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르신·여성·장애우가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 중구의 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선의 선물 역시 일자리입니다.

**황운하가 상상하는 중구는
바람 차가워도 사람 따뜻한 곳입니다.**



“청소년과 장애우들이 맘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다시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써주세요”

산성동 웃음치료사 김정희

황운하의 중구 부흥 공식

어르신: 다 옳다



황운하의 진실한 마음을 담다

- ▶ 세계보건기구(WHO) '어르신 친화 도시'에 중구 가입
- ▶ 중구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 ▶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공공 복지 임대주택 건설
- ▶ 어르신 전용 실버영화관, 실버영화제, 청춘다방 개관
- ▶ 석교동, 오류동, 태평1·2동, 문창동 등 노후 주민센터를 복합커뮤니티 청사로 신축



주거층

실버복지관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

외롭게 혼자 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중년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에 고민하는 자식들이 불안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을 사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입니다.



‘노인은 다 옳다’

우리 지역 한 요양병원
입구에 있는 글귀입니다.

‘100세 시대’의 도래로 많은 사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르신에서부터 젊은이, 학생과 아이가 살기 좋은 중구.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까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지역을 발전시킬 진정한 영웅은
바로 오늘 중구에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아이와 어르신이 더 활기찬 중구!
마술사처럼 주민의 얼굴에 행복한 함박웃음을 전해줘요”

용두동 '춤추는 가위손' '나희미용실' 권혁순

황운하의 중구 부흥 공식

행복: 풀다



혹, 그거 아세요?

네잎 클로버 꽃말은 행운이지만,
흔하디 흔한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란거

인기 없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못다 만난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황운하라는 이름 석 자 보다는 그가 한 일이
더 오래 기억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

표만 얻으러 다니는 국회의원이라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

황운하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일로써 보람을 찾고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황운하의 한결같은 신념.

**언제나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힘을 내요 우리!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 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꿈과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결코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반드시 이뤄주십시오.”

부사동 주민, 변호사 문성식

진정한 리더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실하고 신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삶에 지친 주민,
또 가슴 아파하는 주민, 씁쓸해 하는 주민,
외로워하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모든 주민들을 보듬어 안는 국회의원,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화동, (사)풀뿌리사람들 이사장 송인준



대전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을 기억해주세요.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

황운하가 걸어온 길

학력 |

대전 현암초(입학)
대전 문화초(전학)
대전 산성초(4회)
대전 동산중(9회)
서대전고(6회)
경찰대학 법학과(1회)
고려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력 |

(전)대전 중부경찰서장
(전)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단장
(전)대전지방경찰청장

1

백배를 생각하면 올바른 선택

황운하

